



신정재
(주)에스에프 회장

SOFA를 바꿔라

2001년 2월 하와이 근해에서는 일본의 학생 실습선을 작전중이던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이 물위로 갑자기 부상(浮上)하는 바람에 그 실습선이 침몰되면서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고 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그때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 시기였다. 그는 그 이튿날 즉시 일본의 고이스미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전했다.

아무리 외교가 국력에 따라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국력이 약하여 당하는 우리로서는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와는 SOFA(주둔미군지위협정)란 것이 있어서 주둔하는 미군과 그 나라 국민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일변도의 편파적인 것이라고 하여 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여름 의정부에서 작전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 두명이 깔려 희생된 사건과 그 사후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한 결과는 더욱 그 협정이 불합리함을 증명하고 있다.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과의 협정보다도 차별적이라고 한다. 독일과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전범국가이고 우리나라는 6.25전쟁당시 공산군과 대항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온 소위 혈맹인 관계이다.

아무리 국력이 차이가 나고 협정당시보다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전범국가보다 혈맹과의 지위협정이 못하단 말인가? 국가간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기본이론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한미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군사적인 혈맹을 넘어서 경제협력이나 무역상대국

으로서의 그 중요성이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상호 협력적인 상대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사건이 난 것에 대한 초동수사는 물론 뒷처리 과정에서도 작전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는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해당 미군을 타국으로 전출시킴으로서 맹방인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보다도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SOFA의 개정을 요구하고 시위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과격하게 미국 부대로 난입하기도 했다. 그제서야 미국은 주한 미국대사를 통하여 미국 국무장관, 대통령의 유감표명을 뒤늦게 해 왔고 평화적이고 설득력있는 촛불시위가 계속되자 부시 미국 대통령은 또 뒤늦게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로 유감 표명을 해 왔다.

실로 사건 발생된지 몇 개월 후에 일이다. 그것도 이것이 반미감정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지 그래서 미군철수운동으로 발전되는 것이 두려워 그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동은 반미가 아니라 친미를 하기 위하여 서로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동반자적 입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SOFA의 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다.

일부 보수 언론도 문제다. 이러한 일반 국민의 순수한 뜻을 반미로 몰고 그 뒤에 반미를 조종하는 모임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시대가 아님은 분명하다. 대립적인 흑백논리가 아닌 나타난 불공정 사실을 공정하게 하자는 순수한 일반 소시민의 뜻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새로 된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런데 나한테 큰일이 났다. 10년 이상을 써 온 우리집의 소파(sofa)가 바꿀 때가 지난 것이다. 집사람은 “나도 촛불들고 시위하기 전에 소파(sofa)의자 좀 빨리 바꿔 주세요!” 공갈 아닌 애원이다. 새로이 대통령이 SOFA를 개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집 소파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양계**



▲ 촛불시위하는 일반시민들